

남원 덕과면 등, 이동빨래방 사업 추진 협약 맺어

남원시 덕과면 (면장 김형욱) 행정복지센터와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관장 임은웅)은 지난 12일, 지역 내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위생 환경개선을 위해 이동빨래방 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스스로 대형 세탁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취약계층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이불 세탁 등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추천하고,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이동세탁 차량을 지원하여 각 가정을 순회하며 세탁 및 건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히 세탁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형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달하는 과정에서 대상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복지 수요를 파악하는 복지 안전망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임은웅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은 “덕과면과의 협력을 통해 이동 빨래차량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갈 수 있어 뜻깊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나서

남원경찰서(서장 문영상)는 올 여름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서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남원시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합동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해 주목받고 있다. 남원서의 홍보활동은 여름철 계곡과 하천을 찾는 피서객이 증가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진행됐으며, 특히 물놀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계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남원경찰서와 관계 기관은 현장에 드론을 띄워 물놀이객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 위험지역 출입 금지 등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안내를 방송했으며, 합동 순찰팀은 계곡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물놀이 안전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직접 배부하며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화파출소, 장날 맞아 어르신 안전 지키기 총력

순창경찰서(서장 박삼서) 순화파출소는 장날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경찰은 시장을 찾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예방수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안전하게 이용하기, 무단횡단하지 않기, 도로 보행 시 차량 주의하기 등 어르신들이 꼭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문구가 담긴 부채와 물티슈 등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일상생활 속 안전 수칙을 당부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전북대병원, 의료 AI 시대 대비 의료데이터 표준화 본격화

국제·국내 표준 기반 상호운용성 구축... 의료 AI·지역 공공의료 혁신 기반 마련

전북대학교병원이 의료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의료데이터 표준화와 의료기관 간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의생명연구원(원장 오선영)이 임상연구지원센터에서 ‘의료 AI 시대를 위한 의료데이터 표준화 착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데이터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연구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복지 분야 인공지능 전환정책과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AI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의료데이터를 국제·국내 표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임상과 연구는 물론 의료기관 간에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국제 의료정보 교환 표준인 HL7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과 국내 의료정보 표준인 KR Core, 임상정보 표준모델인 KR CDX(Korea Clinical Data Interoperability)를 기반으로 의료데이터의 구조와 의미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전자 의무기록(EMR)을 비롯해 검사·영상 등 다양한 임상데이터를 연구와 의료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의료데이터로 전환하고, 의료기관 간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사업은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한 의료데이터 표준화 시범사업(Pilot 프로젝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임상 데이터 항목 정의, 표준 용어 적용, FHIR 기반 데이터 매핑, 연구용 표준 데이터셋 구축, 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이다. 전북대병원은 향후 구축된 표준화 기반을 다기관 공동연구와 국가 연구개발사업, 의료 AI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연계와 협력 연구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의료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 FHIR 기반 연구 플랫폼 구축, 질환 중심 표준 데이터셋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의료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립대병원의 의료데이터 표준화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 ‘행BOK열차’ 팀, 한국은행 경시대회 전국결선 ‘금상’

전북대 학생들로 구성된 ‘행BOK열차’ 팀이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개최한 ‘2026 제23회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에서 전북대 ‘행BOK열차’ 팀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49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심을 통과한 58개 팀이 지역예선에 진출했다. 이 가운데 7개 팀이 전국결선대회에 올라 최종 경쟁을 펼쳤다. 전북대 ‘행BOK열차’ 팀은 국내외 경제동향을 비롯해 물가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8월 기준금리 결정 내용을 효과적으로 작성·발표했다. 또 발표 이후 진행된 심사위원들의 질의에도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에 대한 논리를 바탕으로 답변하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국결선에서 금상을 수상한 전북대팀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게는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소정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한국은행은 금상 수상팀인 전북대 ‘행BOK열차’ 팀의 발표 영상을 추후 한국은행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국결선에서 금상을 수상한 전북대팀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게는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소정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한국은행은 금상 수상팀인 전북대 ‘행BOK열차’ 팀의 발표 영상을 추후 한국은행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진안군, 여름철 피서지 ‘물가안정캠페인’ 전개

진안군은 13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진안지부 회원과 함께 마이산 북부 상가 일원에서 여름철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바가지요금과 부당요금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안군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원들은 마이산 북부 상가 일원을 돌며 상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상인들에게 가격표시제 준수와 합리적인 가격 책정, 부당요금 근절 및 친절한 손님맞이 등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화재 예방 안전점검

진안군은 진안고원시장 화재 예방하기 위하여 10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고원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상인과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진안고원시장장은 점포들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현장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전기시설 관리 상태 △소방차량 진입 동선·현장 활동 여건 확인 △소방시설 설치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비상연락망과 대응체계 운영 실태 등 화재 예방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진춘성 군수는 “고원시장은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초기 대응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철저한 시설 점검과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 쌍치파출소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홍보

순창경찰서(서장 박삼서) 쌍치파출소는 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쌍치면 문화센터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 대상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도 적극 나선 것으로, 폭염특보 발령시 △낮시간 농작업 및 외출 등 자제 △물 자주 마시기 △실내 냉방기기 적극 활용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적극 안내하였으며 특히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119 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조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